

사랑을 받는 동역자

열왕기하 4:8-17, 빌레몬서 1:1-3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인생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 - "목회자 또는 종직자"

→ 종직자의 모델 빌레몬 :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직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 (1)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2)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어, (3)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2.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 : (1)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받고, (2) 기쁨으로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지교회의 주역이 되며, (3)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 돕는 자
- 결론 : 평생 받아야 할 응답의 미션 - (1)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영성 회복, (2) 전도자와 기도로 소통, (3)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만큼의 영적 수준 준비

“주님, 감사합니다. 참사랑 가족들이 정한 시간에 허락하신 장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된 것을 감사하면서, 복음공동체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여, 여기에서 얻은 힘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진한 사람들이 성공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학 때 자기 교향을 방만했던 케네디와 악수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내가 저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케네디 대통령을 학생 때 만났는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품었더니, 지금 유엔의 수장이 되었다. 본인은 고사하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도 1등이라고 한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램넛들에게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어야 한다.

(1) 그러면 인생 목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는가? 많은 직업이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쉽게 목표를 가지려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제 1문답).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이고,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고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아시아에 5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자가 2% 뿐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겠는가. 그렇다면 전 생애를 풀-타임으로 바쳐서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목회자를 도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있으나마나한 사람, 겨우 자기 밥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들다. 나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셨다. 그래서 종직자가 되어, 목회자의 오른팔, 안 되면 왼 팔, 안 되면 새끼손가락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란 나를 불러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내 일생을 바쳐 주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섬기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2) 오늘 본문에, 목회자를 도운 동역자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헌신한 종직자의 모델이 나온다. 그것이 빌레몬이다. 여러분, 무슨 직업이어도 괜찮다. 군인으로, 또는 교육자로, 또는 금융인으로 종직자의 모델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질문해 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빌레몬과 같은 종직자로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컸다. 그분 때문에 우리 램넛들이 자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지역이 살아났다.’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전문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램넛들이 빌레몬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어른들도 못 했는데, “목사님,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어른이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격려해 준 램넛들이 있다. 그들의 앞날을 기대한다.

(3) 빌레몬서는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종직자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인데 오늘날 성경이 되었다. 그런데 짧은 이 편지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모델이 들어 있다. 나는 신학교에서 빌레몬서를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주제는 간단하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는데, 노예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나? 빌레몬은 예수를

잘 믿는 종직자여서 너그럽게 노예들을 대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금고를 훔쳐서 도망간 것이다. 그랬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시간표가 되었는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 그 전에는 쓸모없는 노예였지만 가치있는 사람이 되었다. 가치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형제라 불릴 만큼 가치있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보낸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어떤 학자는, 빌레몬을 하나님 아버지 에 비하면, 오네시모는 죄인인 전 인류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죽어 마땅한 인생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론, 인간론이 거기에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는 굉장한 편지가 이 빌레몬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다.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서, ‘용서해 주고 형제로 받아 주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지지 않았느냐? 만약 오네시모가 빛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었는데, 오네시모는 고향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 오늘 이 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한다.

1. 하나님이 쓰시는 종직자의 조건 (1) :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직자,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직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불갑을 첫 번째 주체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종직자였는데, 이 교회는 골로새서 1:7에 보니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두란노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때 아마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것 같다. 그 지역에 파송을 받아 목회를 한 사람이 에바브라(에바브로디도)다. 이 교회의 종직자가 빌레몬이었다. 아시아에 속한 한 지역인 골로새의 교회의 종직자로 빌레몬이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빌레몬은 사도행전 19장 전도운동의 열매로 일어난 인물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 첫째, 빌레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리 믿어 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듯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감격하여 부른 존 뉴턴(John Newton)의 노래처럼, 빌레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다. 바울 팀은 아디를 기쁘게 성령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여 복음을 전했다. 집안에 여러 노예들을 부리고 있을 만큼 성공한 경제인이었고 전문인이었던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걸렸다. 여러분, 은혜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아닌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냐.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없을 만큼 부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생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며, 사단을 꺾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없음을 성령을 가지고 제대로 전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랑을 빌레몬이 받았다. 구원의 사랑,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는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경직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다. 오늘도 말씀드린다. 아직도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분은 가슴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게 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린 참 왕자이다. 그분 만난 축복 받은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 빌레몬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나.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똑같이 실패하고

저주 속에 있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권세를 모르니까 벌벌 떠다. 맨날 눈치만 보고 숨기며 살아간다.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승리했던 크리스천, 일곱 램넛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성공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주셨다. 복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니라.” 아무리 인간이 성공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날 다가오는 운명, 시주팔자를 못 이긴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다. 정신과 육신이 계속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같은 삶을 산다. 가문과 후대에 저주를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빌레몬이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자. “나도 받았습니데이.” (웃음) 빌레몬은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삶을 산 것이다.

(3)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무엇 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참사랑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 시기 바란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은 불신자 상대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 버렸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전달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너무 쪼아대지 마라. 괜찮다. 그것 때문에 지옥가지 않는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램넛들이 집을 나가서 죄인처럼 살아가니까, “한 번 더 나가라. 괜찮다. 한 번 더 나가도 괜찮다.” 맞지 않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 않다.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허물애 사로잡혀 고통당하지 말고 내던져 버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 삶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 바울도 말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핏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삶은 못 산다”는 생각은 버려라. 다섯 잔 먹던 것, 한 잔 먹으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먹게 된다. (웃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될 수 있다. 더러운 생활, 불의한 생활도 청산할 수 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근심, 걱정만 주변 사람에게 끼쳤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기쁨과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 왜 한 번 뿐인 인생을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주는 삶이 되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라면 할 수 있다.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2.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의 조건 (2) :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빌레몬은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전도자의 인정을 받고, 전도자를 기쁘게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거리가 되지 마라.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져야지,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고 걱정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빌레몬은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과 램넛들이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란다. 이미 되어 있으니 누리면 된다.

(1) 본문 2절을 보면, 빌레몬은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자매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도자가 된 것이다. 거부(巨富)의 아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선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란다.

(2) 빌레몬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었다. 아직 우리 중에서 자기 집을 개방하지 못한 분은 회개하고, 집을 교회로 만들어라. 이웃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1-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간힌 자 된 바울과 밋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킴보와; 또 어디에 보낸다고 했나?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자기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그냥 집이 아니다. 노예가 여럿 있었다고 하니 꽤 큰 집이었을 것이고, 지역 유력자의 집이었을 것이다. 사업가 아니면 농장 경영자였을 것이다. 이런 빌레몬이 자기 집을 지역복음화의 센터로 내어놓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뭘 지킬 게 그렇게 많아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목사도 구역장도 이웃도 못 오게 하는가. 문을 열고, 모든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집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한다. 빌레몬은 이렇게 지역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전도자의 사랑,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3) 그러면서 빌레몬은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간힌 자 된 바울의 배경이 되었다. 식주

인이 되었다. 기도의 배경이 되고 삶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누명을 쓴 것이지만, 일단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 아닌가? 그런데 빌레몬은 당당히 그런 죄인의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바울 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 전도 팀의 필요를 채웠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체험을 못 한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삶은 노예의 삶이다.

나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 “주의 종이 되어서도 얻어먹는 거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배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았다. 배푸는 자가 되어야지, 왜 얻어먹는 자가 될 것인가. 생을 걸어 버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이런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다. 교회의 중직을 맡았는데도 한 번도 목회자와 동행하거나, 전도자의 부비를 대어주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는 최창근 장로님을 정말 존경한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한경직 목사님을 늘 모시고 수행하며 따라다녔다. 목사님이 이상한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옆에서 보필했다. 그러면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했다. 일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죽는다. 무너뜨릴 수 없다.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서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면 자기가 죽는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인물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리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했다. 로마서 16:4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사에 보면 가는 곳마다 있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 노릇을 했다. 빌레몬은 전도자의 사랑을 받을 만큼 전도자를 제대로 도운 사람이었다. 기도의 배경, 경제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팀의 전도운동이 막히지 않도록 도운 전도의 동역자였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김현덕 목사님에게 전달했다. 딸만 셋을 낳았길래,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나.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러면 아들이다.” (웃음) 이병부 목사님께 드릴 여비도 그 헌금 속에서 따로 떼어 놓았다. 내가 쓰는 적이 없다. 내 생활비는 절반은 동결하고 오히려 하후상박했다. 다른 교회는 부교역자 생활비는 3개월 동안 안 주기도 하는데 말이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빌레몬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램넛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간밤에 내가 편지를 받았다. “목사님, 복음 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라서는 잘 할 겁니다.” 그때 나는 천국에 가 있겠지만, 잘 하라. 여러분, 명이나 지위,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중직자가 되라. 올-인 해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죽든지, 아니면 교회의 기둥 되는 중직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빌레몬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할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주간과 평생에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

(1) 첫째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복음메시지를 암송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 만큼 영성을 회복하고 체험해야 한다.

(2) 두 번째다.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만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번 주에 이병부 목사님은 몽골에, 정운돈 목사님은 일본에 가신다. 선교를 위한 이런 스케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 주의 종들과 기도로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만큼 영적 수준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가 되시기 바란다. 지교회 운동, 캠프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초대교회의 70인 요원과 중직자들은 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살아난다. 지역은 변화될 것이다.

우리 램넛들이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와 함께 정말로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주제말씀 그대로, 사랑을 받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동역자, 국회의원의 동역자, 사장의 동역자도 다 필요하다. 특별히 교회에는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을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생각만 해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져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누리는 게 아니다. 사랑을 받는 동역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모든 삶에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는 없고, 모든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팔을 펼 수 있게 하시며, 램넛들을 많이 키워 민족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